

▲재활용 산업중 육성대상 사업을 하는 자와 재활용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재활용 개별사업자로 각각 정했다.

특히 ▲제조 또는 수입한 예치금 대상 폐기물의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재활용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하는 예치금 납부자 ▲예치금대상 폐기물 또는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재활용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자 ▲재활용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재활용 지정 사업자, 제1종 지정 사업자, 제2종 지정 사업자,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 ▲환경처 또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은 용자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키로 하였다(표1 참조).

반면 폐기물관리 기금의 지원대상중 \*다른 자금의 용자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거나 자금지원 추천을 받은 자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 소속 중소기업 ▲기타 자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자조건은 ▲재활용시설 설치지원의 경우 연 7%의 대출금리,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3억원 이하, 소요시설 자금의 90% 이내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의 경우 연 5%의 대출금리,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1억원 이하, 소용연 구 자금의 100%이내로 거치기간의 경과후 매 6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용자범위로는 재활용시설 설치지원의 경우 기계, 장비, 설비 등의 제작, 구입 설치 자금으로 한하며 재활용기술 개발지원의 경우에는 기술개발 추진에 필요한 연구용 및 시제품 제작용 기계장치, 기자재 구입비와 기술개발 추진에 필요한 소요 운전자금에 한하여 지원하게 된다.

### EPS국제재활용협약 가입

재활용협회, 국제환경포럼 통해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회장 이덕림)에 따르면 지난 3월 첫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스티로폴의 국제 리사이클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한 '94국제환경포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 스티로폴 포장재 재활용 협약(별첨 참조)에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리회의는 구미 아시아 지역에서 15개국에 참여했으며, 구주 스티로폴업계 조직인 유맵스(EUMEPS)가 주최한 것으로 스티로폴 재활용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함과 동시에 각 지역 각국에서 재활용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주의에서 탈피전 세계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국제 네트워크 구성을 주요 안건으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각국과 EUMEPS의 금후 활동방침, 국제 재활용 협정의 신규참가 및 각 지역 법규제동향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국제 스티로폴 포장재 재활용 협약은 각국의 스티로폴 제조 및 사용업체 등이 중심이 되어 페스티로폴 포장재를 원산국에 관계없이 회수하여 재활용하고 스티로폴 재활용 제품의 적극 개발과 스티로폴 포장재에 관한 통일된

#### 1993년 국제 재활용 협약

발포폴리스티렌 원충재에 관한 환경보존 국제협력협약  
1993년 재활용의 제창

현재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환경보존 규제는 고품폐기물 중에서도 특히 포장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기준은 발포폴리스티렌(EPS) 완충 포장재를 포함하여 모든 포장재의 구체적인 재활용률 및 재생 이용된 성분비율에 적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상기 기준이 나라에 따라 다르고 또한 끊임없이 변경되기 때문에 EPS 발포포장재를 선택하는데 생산업자가 혼란을 일으킨다. 이는 시장을 교란시키고, 거래를 방해하며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EPS 완충 포장재는 환경에 적절한 것이다. 이는 모든 고품폐기물 환경대책에도 잘 적용하고 있다. EPS 완충포장재는 재생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비디오, 카세트 케이스, 사무용구 기구 및 완구와 같은 다종 다양한 최종 소비제품(새로운 완충 포장재를 포함)으로 재가공되고 있다. 재생이용을 위한 기간시설이 이미 세계적으로 계속 창설되고 있다. EPS완충포장재는 현재 전 세계에 수천 개의 지정장소에서 재생이용을 위하여 회수되고 있다. 또 일부 EPS완충포장재의 생산업자는 대고객 포장재로 재생품을 성분으로 한 원료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EPS발포 제품은 중량이 가볍고 포장 용적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의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제조에는 다른 완충용 제품보다도 소량의 에너지 밖에 필요하지 않는다. 독일 EPSY, 오스트리아EPSY, 일본발포스티로폴재활용협회(JEPSRA) 및 미국 발포포장재재이용자협의회(AFPR)의 대표자들은 EPS 완충 포장재를 그 원산국에 관계없이 현지의 재생이용 가이드라인에 항상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합하였다. 고품 폐기물 처리의 규제는 나라에 따라, 또 많은 경우 주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 협약은 각국의 EPS완충 포장재 업계에게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한다.

국제환경기준을 수립하고 또한 스티로폴 포장재의 잘못 인식된 점을 올바로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92년 11월 최초로 미국 시카고 국제회의에서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4개국이 발의하여 협약이 조인되었으며, 이번 파리회의에서 협약 가입국이 18개국으로 늘어났다.

### 재활용협회 정기총회 가져

94년도 사업계획 발표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는 지난 3월 6일 협회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향후 5개년 장기 종합계획서 중에는 1994년도에는 EPS 포장재 규제조항을 의무화하

(표2) EPS사용량 및 폐 EPS (94년 1월 현재)

구	1992년 (톤)	분	1993년 (톤)	
EPS	포장재	가전포장재	35,000	
		일반포장재	5,500	
		어상자	7,900	
		농산물상자	2,000	
		부자	3,600	
	소 계	① 54,000	57,098	
	단열재	116,000	128,832	
	합 계	170,000	185,930	
	수출(포장재로 수출되는 양)	② 21,000		
	수입(포장재로 수입되는 양)	③ 2,700		
폐 EPS발생량(①-②-③)	35,700	36,800		
PSP(Polystyrene Paper)	18,500			
압출보드	5,400			
재활용량	4,980	5,000		

(표3) 폐EPS 발생처별 재활용 추진

구분	처 리 방 향	'92처리량	'98처리목표	비고
가 공 사	협회회원→재활용센터 활용	400T/Y	600T/Y	
가 전 사	재생업체 연계 및 가전사 자체처리 유도	3,380T/Y	4,500T/Y	
전자대리점	물류센터 환송추진 및 대리점 회수함 재생 및 가공업체 연계	30T/Y	2,000T/Y	
백 화 점	대형→자체감용 시설 설치 유도			
농수산시장	중소형→지자체 연결 또는 가공, 재생업체	1,050T/Y	1,600T/Y	
전자상가	연계처리			
일반기업	재생업체, 가공업체 연결 처리	100T/Y	700T/Y	
가 정	홍보강화→회수함 설치 지자체 처리유도 소각처리 가능토록 검토 필요	1,000T/Y		※ 국민 홍보차원에서 사업추진
기 타	소각로 설치 처리	20T/Y	2,600T/Y	
계		4,980T/Y	13,000T/Y	

도록 개정기 위한 EPS에 관련된 법 개선 여건조성을 위하여 여론을 선도하여 EPS에 대한 환경인식의 대전환을 중점사업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점활동 방침은 ▲EPS에 대한 환경인식의 대전환 ▲홍보기반 조성 ▲국제협력 강화 ▲회원확대와 재활용 사업추진으로 기존 재생업체의 활성화, 전 EPS 성형가공업체에 재활용센터화를 위한 기반조성 ▲재활용 목표 달성(6,000톤 재활용:16%)이다.

### 과대·과장포장 실태조사

소비자보호원, 법 규제 강화 지적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은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과대·과장포장실태와 그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관련단체에 법규제를 강화해 줄것을 촉구했다.

소비자·포장재료생산업자·소비자상품 생산업자·백화점을 대상으로 과대·과장포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현행 유통상품의 포장적정성 여부에 대해 소비자는 89.4%, 사업자는 55.3%가 과대포장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포장문제에 대해 사업자는 90.9%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자는 45.9%만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포장에 대한 관심부족과 사업자의 그릇된 인식이 과대 과장 포장을 발생시키는 근본원인으로 대두되기도 했다.

특히 상업포장기준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등의 기준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절반정도만이 이 기준을 인식

하고 있어 제반 포장관련 법규의 재정비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보호원측은 경제기획원과 환경처, 공업진흥청에 포장공간기준 조정, 일회용 사용금지 및 사업자의 포장기준 준수 및 자율적 실천방안 강구 등 과대 과장포장규제에 관한 법을 강화해 줄것을 건의했고 앞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화업계 5% 감산 원칙만 합의 감산방식 의견 대립 등 조정

국내 유화업계가 공급과잉을 빚고 있는 폴리올레핀 계통, 제품의 감산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세부적인 의견조정을 못해 6개월째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회장 이종환)는 최근 자율감산 최종안을 작성, 주요회원 업체들에 대한 설득을 계속하고 있으나 호남정유와 호남석유화학 등 선발 업체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자율감산을 성사시키지 못한 채 업체간 이해조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략 5%를 감산하자는 원론에는 모두 찬성하고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감산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의견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은 감산하되 각 사의 감산비율을 생산능력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감안해 하느냐 하는 문제다.

협회측은 타협안으로 95년을 기준으로 한 생산 설비능력 70%, 93년도 상반기 시장 점유율 30%를 감안해 각 사 감산안을 계획한 바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생산설비능력이 작고 시장점유가 상대적으로 큰 업체들은 손해를 보고 거꾸로 설비는 크고 시장점유가 작은 업체들은 득을 본다는 일부 선발 업체들의 반발에 부딪쳐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주요 감산대상 제품은 PP를 포함한 폴리올레핀계이다. 이 제품의 각사 생산능력은 93년말 현재 대한유화 35만톤, 현대석유화학 24만1천톤(공칭은 17만톤), 호남석유화학 22만톤, 삼성중합화학 20만톤, 대림산업 17만8천톤, 호남정유 16만5천톤, 유공 14만5천톤, 동양나이론 10만톤으로 모두 1백59만9천톤이다. 이중 내수는 절반인 71만5천톤 수준이고 나머지는 변동비도 뽑지 못하는 헐값에 수출되고 있어 업체들의 채산성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 프라스틱조합 성과급제 도입

올 매출액 1천2백억 목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국노)이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상 최초로 능력위주의 성과급제를 이달부터 도입, 시행할 계획이어서 업계로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밖으로의 시장개방 압력과 안으로 중소기업고유업종 해제, 단체수의계약, 제도개선 등으로 중소기업영역이 점차 좁아지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프라스틱조합이 일반 기업체에서나 볼 수 있는 성과급제를 과감하게 도입한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도 나름대로의 전략과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출로 비춰줘 다른 조합뿐만 아니라 회원사들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측은 현재 품목별로 나뉘어져 있는 영업부 체제를 앞으로 2인 1개조 8개팀으로 나눠 가동할 계획이다. 즉 필름, PVC관, 용기, 육모상자, 시트팀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조합은 매월 영업실적을 평가,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면 그 비율에 따른 성과급을 봉급 외에 별도 지급할 방침이다. 우선 1차년도인 올해는 영업부 직원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96년까지 전 직원을 상대로 연봉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조합은 이와 함께 해외영업에 큰 비중을 두고 지난 1월 중 일본 등지로 10만달러어치를 수출해 올 목표 1백30만달러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보다 10배 늘어난 수치이다.

조합이 수출하는 제품은 단체표준인 PL마크를 부착해 선적할 계획이며 회사원들의 바이어알선, 해외공동 진출, ISO 9000규격 인증 등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 구주지역 물류연수시찰단 파견

물류협의회, 하노버전시회도 참관

사단법인 한국물류관리협의회(회장 안태호)는 이달 17일부터 27일까지(10박 11일) 구주지역 물류시찰단을 파견한다.

이번 물류시찰단 파견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기업물류 또한큰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각 기업에 폭넓은